초청강연3

한국 전기화학회에 대한 우리의 기대

박수문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본 발표에서는 현재 미국에 소재하는 The Electrochemical Society, Inc.가 1901년 30여명으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는 과정을 간단히 소개한 뒤 한국전기화학회가 나가야 할 모형을 제시함과 동시에 한국의 전기화학자들에게 바라는 본인의 기대를 기술하고자 한다. 남의 역사를 더듬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시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lectrochemical Society, Inc.는 1901년 30여명으로 시작하여 1997년 가을 현재 7,321명의 회원을 가지고 학문의 발전과 대학원 교육에 공헌하고 있다. 세계적인 학회로써 그 회원이 7,300여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이 학회가 단지 크기라는 이유로 성공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겠다. 이 학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희대의 발명가 Thomas Edison을 비롯하여 carborundum을 발견하고 흑연을 합성한 E. G. Acheson, Burgess Battery Company를 설립한 C. F. Burgess, 대학시절에 알루미늄의 생산법을 발명한 C. M. Hall, 세계굴지의 화학회사인 Dow Chemical Company를 설립한 H. H. Dow, Leeds and Northrup 회사를 설립한 E. F. Northrup, 그리고 Westin Instruments를 설립한 E. Westin등과 같은 발명가들이나 기업인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노벨상을 수상한 R. Marcus 같은 이들도 이 학회의 회원이었다. 이와 같이 유명한 이들이 이 학회의 회원이었거나 회원이라는 사실은 이 학회에 가입함이 이들의 과학적 또는 다른 직업적 생애의 구축에 매우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The Electrochemical Society, Inc.는 현재 두 개의 학술지와 한 개의 잡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널리 인용되는 문헌이다. 뿐만 아니라 매년 여러 명의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줌으로써 대학원 교육에 공헌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업적을 가진 전기화학자나 고체물리학자 그리고 전자공학자 등을 찾아내어 시상함으로써 이들 학문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데 에는 회원들의 공헌도 크지만 학회를 운영하는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커다란 몫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The Electrochemical Society, Inc.의 설립 및 발전과정은 한국전기화학회와 그 회원들인 우리의 전기화학자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과학기술 발전 및 교육에 좋은 모형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형을 토대로 하여 10년 뒤에 오늘이 기억되고 우리의 커다란 공헌을 되새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